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어두움과 사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다. 무엇보다 잔인한 4월의 세월호 참사로 3백여 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눈앞에 아직 다 잠기지 않은 뒤집어진 배를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지켜보아야했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외치는 우리 자식들의 비명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공범자요 살인 방조자일지도 모른다.

이제 세월호는 2014년 세월 속에 묻히고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판교 환풍구 사고와 팬션 화재, 이어지는 어선 침몰 사고, 토막 살해된 시신...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구타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어린 학생들은 학업의 부담을 못 이기고 일찍 생을 마감하며, 아파트 경비원과 실직한 어른들은 마지막 자존감을 침해당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난해도 자살공화국 1위 자리를 지켰다.

어둠의 터널 끝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움의 터널은 언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긴 터널을 운전하고 가다보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행여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 작은 한줄기 빛이 나타나면서 눈부신 광명을 맞이하게 된다. 터널은 마침내는 끝나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으며, 벽을 벽이라 생각지 말고 문이라 생각하며 밀어보면 그곳에 문이 열린다고도 했다.

C.S.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네 남매가 벽장으로 들어가 벽을 밀고 나아



가자 환상의 세계 나니아가 펼쳐진다. 우리에게 벽은 없다. 단지 주춤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부정의 벽이 그저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2014년이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 새해를 맞이했다. 물론 2015년이 우리에게 눈부신 빛으로 다가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터널은 반드시 밝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이 존중받으며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밝은 세상은 언제 올 것이며 누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물량주의, 자본주의, 성장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과연 얼마나 소중히 지켜왔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뱃속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의 잔인함과 마주하게 되며, 청소년의 일탈과 폭력의 배경에는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과 드라마의 선정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돈을 숭배하는 어른들의 배금주의와 이중성이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생명은 돈과 쾌락에 밀려 우리들의 우선순위에서 저만치 밀려났다.



박상은 안양 생명원 의료원장이자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오랜 동역으로 이사 및 <월드뷰>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생명, 더 넓게 생각하라

이제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야 한다. 안전의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돈이나 명예, 쾌락에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명제다. 생명은 한번 뿐이고 되돌릴 수 없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다. 아무리 작고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또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라 할지라도 인간 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목적적 존재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켜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다.

암매장 당하는 소녀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낙태당하는 태아의 비명을 들을 수 있으며, 토막 살해된 주검은 갈기갈기 찢겨진 어린 생명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한 형법학자는 이런 끔찍한 살해사건을 이미 낙태술로 오랫동안 습득되고 반복된 범죄의 행위가 바깥으로 표면화된 사회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이렇듯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들—인공 유산, 여아살해, 장기매매, 안락사 등—이 성문란과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급기야 폭력과 살인을 위시한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종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새로운 기술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다음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불임 치료, 자신의 입맛대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태아의 정자와 난자를 살 수 있는 세상, 태아 세포 이식술,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이식, 장기 수급 부족의 대책으로 등장한 뇌사문제,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의 안락사 시비, 복제 양으로 야기된 인간 복제논란, 모두가 의료인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문적인 윤리문제들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세계관

이러한 생명윤리 이슈들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사람은 자라면서 경험하고 배운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세계관이라고 한다. 결국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백 명이 있으면 백 개의 세계관이 있는 것이며 오천만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오천만 개의 세계관이 함께 모여 있는 셈이다. 이를 단순히 둘로 나눈다면 생명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관과 상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절대가치를 인정하는 세계관은 어떤 인간 생명이라도, 가령 중증장애아이든 치매환자든 말기암 환자라도, 인간 생명이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을 지녔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의 태아때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 생명은 목적적 존재로서 결코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다.

반면, 인간 생명을 상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관은 인간 생명이라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뇌 손상으로 지능이 사냥개보다 떨어지는 중증장애아나 더 이상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낮은 질의 인간 생명으로 보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생을 마감함으로써 나머지 생명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나아가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간 생명이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 당신을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소수의 인간 생명의 가치에는 그리 관심을 쏟지 않으며, 쾌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 얼마든지 인간 생명을 수단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운 황금만능주의, 출세주의, 천민자본주의 아래 우리 모두가 속박당해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본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제 우리 모두 생명존중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생명존중현장은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및 대학교와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엄성을 교육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향후 만들어질 안전매뉴얼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사회지도층,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실천해내는 생명존중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봄, 어김없이 새싹은 돋아나며, 생명은 기나긴 겨울의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강한 생명력을 드러낼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기에 다시금 희망을 노래한다. 이 찬란한 2015년 봄, 마침내 생명존중현장이 만들어짐으로 생명존중의 원년이 되길 모두와 함께 간절히 소망해본다. 

※“함께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와이드 칼럼으로 “월드뷰”를 신설하여 본지의 칼럼 중 한편을 공동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생명이 첫째입니다” 칼럼은 2/28일자 국민일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